

모옴의 기발한 책 광고

영국의 소설 작가 ‘윌리엄 서머셋 모옴’이 아직 젊었을 때에 기지를 발휘한 이야기이다.

처음으로 작품을 하나 내놓았을 때 아직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책이 잘 팔리지 않았다.

출판사에서는 광고를 내면 광고료만 손해본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책은 별로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모옴은 실망하지 않고 자기의 처녀작인 그 소설 책이 잘 팔리게 할 좋은 묘안을 연구하여 자기가 직접 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냈다.

“나는 나와 결혼할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며, 교양이 있고 재산도 상당히 있는 젊은 남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배우자는 모든 면에서 소설작가 모옴이 처음 내놓은 소설의 여자 주인공과 같은 여자라야 합니다.

모옴의 기지로 이러한 광고가 각 신문에 실리자 미혼 여성들은 모두 그 소설의 여주인공이 어떤 여자인가를 알고 싶어서 너도나도 그 책을 찾아 책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렸기 때문에 불과 1주일만에 런던 시내의 모든 서점에서 한 권도 남김 없이 매진되어 즉시 재판, 삼판까지 출판하게 되었다.

모옴이 유명해진 것이 바로 이런 일이 있던 후였다.